알프스의 웅장한 파노라마를 선사하는 스위스의 명물, 산악 교통.

퓨니큘러부터 곤돌라, 케이블카, 톱니바퀴 열차, 산악 열차까지

알프스의 봉우리 정상에 올라, 고요한 빙하 호수를 내려다 보거나, 주변으로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4000m급 봉우리들 한 가운데서 감탄을 하거나, 깎아지른 바위 벽을 바라보며 스릴을 느끼거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마을의 자그마한 지붕들을 내려다 보거나, 모두 스위스의 산 봉우리 꼭대기에서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런 근사한 스위스의 파노라마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악 열차와 케이블카 등의 산악 교통편이다. 산악 열차나 케이블카에 올라 정상까지 오르내리며 깊은 숲속의 풍경과 웅장한 절벽의 얼굴을 보다 가까이 볼 수 있다. 파노라마 풍경뿐 아니라, 산 속에 자리한 산장 식당에서는 미식을 즐길 수 있고, 중간 역에 내려 하이킹이나 스키 등의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산악 열차나 케이블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산 아래와 정상을 연결하는 외에도 중간 역까지의 여행도 충분하고 다채롭게 의미있는 여행을 만들어주는 공을 세우고 있는 스위스의 대표 산악 열차와 케이블카를 소개한다.

도심지와 자연을 연결하는 산악 교통.

1. 베른의 뒷동산을 오르는 퓨니큘러, 구어텐반(Gurtenbahn).

구어텐 페스티벌(Gurten Festival)로 더 잘 알려진 구어텐 산은,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의 뒷동산이다. 베른 시민들이 하이킹이나 가족단위 모임으로 잘 찾는 곳이기도 하다.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더욱 자연과 친근한 구어텐은 새빨간 퓨니큘러(funicular)로 오를 수 있다. 베른 근교의 바베른(Wabern)에서 출발하는 퓨니큘러를 타고 몇 분만 오르면 베른 구시가지의 낭만적인 지붕들과 에메랄드 빛 아레(Aare) 강이 눈 앞에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정상의 전망 탑에서는 알프스의 풍경도 보인다. 널찍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 각종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좋으며,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젊은이들에게 인기다. 가족단위 여행자들에게는 전기 자동차와 미니어쳐 철도, 클라이밍이 가능한 성곽, 원반 던지기, 볼링 게임 등이 인기다.

고도: 856m
찾아가는 법: 베른 기차역에서 에스반(S-Bahn) 기차를 타고 14분이 소요되는 바베른(Wabern)에 하차하거나, 트램 9번을 타고 바베른-구어텐반(Wabern-Gurtenbahn)에 하차하면 구어텐 행 퓨니큘러역이 나온다.
식당: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인 "타피 루즈(Tapis Rouge)"와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레스토랑 "벨 에따쥬(Bel Etage)"가 있다.
이용료: 왕복 CHF 10.50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gurtenbahn.ch

2. 취리히의 뒷동산을 달리는 기차, 위틀리베르그반(Uetliberg Bahn)

19세기에 만들어진 위틀리베르그 철도는 그 당시 톱니바퀴 열차가 아닌 일반 철도로써는 가장 가파른 것으로,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받았다. 취리히의 문턱에 자리한 산봉우리는 해발 140m 높이로 도심 위에 솟아 있다. 취리히 시가지와 호수, 알프스 산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기막힌 전망대다. 위틀리베르그 정상에는 4성급 파노라마 호텔인, 우토 쿨름(Uto Kulm)이 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 둘러 쌓여 독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밤에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만끽하기 그만이다.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취리히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시민들의 결혼식으로 인기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미식 요리를 즐겨 보거나 잠시 쉬어가며 와인이나 커피 등을 마시기에도 좋다. 위틀리베르그에서 펠젠에그(Felsenegg)까지의 하이킹도 유명한 코스다.

고도: 140m
찾아가는 법: 취리히 기차역에서 위틀리베르그로 출발하는 에스반(S-Bahn)기차가 있다.
식당: 정상의 우토 쿨름 호텔에서 미식 요리나 간단한 음료를 즐기기 좋다.
이용료: 취리히부터 위틀리베르그까지 왕복 CHF 16.80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www.szu.ch

융프라우 지역의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산악 교통.

1. 탑 오프 유럽(Top of Europe),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로 향하는 산악 기차, 융프라우반(Jungfraubahn).

1912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3454m)에 자리한 기차역, 융프라우요흐까지 철도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빙하의 세계는 감탄을 자아낸다.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봉우리가 펼쳐지고, 그 아래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Aletsch) 빙하가 신비스런 빛깔을 뿜어내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융프라우반은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부터 시작되는데 톱니바퀴 열차로 연중 운행되고 있다. 터널과 깍아지른 절벽을 가로질러 융프라우요흐 봉우리 정상까지 운행된다. 터널에서 2회 정차를 하여 아이거 북벽과 주변의 빙하 세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만년설 한 가운데에서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묀히스요흐(Mönchsjoch) 방향으로 45분 정도 스노우 하이크에 나서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얼음 동굴에서는 다양한 얼음 조각을 구경할 수 있고, 스핑크스 전망대, 파노라마가 장관인 "탑 오프 유럽(Top of Europe)" 빙하 레스토랑도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고도: 3454m
찾아가는 법: 그린델발트(Grindelwald) 혹은 라오터브루넨(Lauterbrunnen) 에서 기차를 타고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까지 간 뒤, 융프라우반을 타고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식당: "크리스탈(Crystal)" 레스토랑에서는 스위스 음식을 비롯한 국제적인 메뉴를 맛볼 수 있고, "발리우드(Bollywood)" 레스토랑에서는 인도 메뉴를, "알레취(Aletsch)"에서는 셀프 서비스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이용료: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부터 이용시 왕복 1등석 CHF 212, 2등석 CHF 197.60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에서 출발해 돌아올 때는 그린델발트(Grindelwald)행 이용시 왕복 CHF 180.60 (스위스 패스 소지시 25% 할인)
www.jungfrau.ch

2. 그린델발트(Grindelwald)의 로맨틱한 산정호수로 안내하는 곤돌라, 피르스트반(Firstbahn)

융프라우지역의 낭만적인 샬레 마을, 그린델발트에서 빙하지대의 파노라마를 펼쳐내는 곳, 피르스트(First)에 오를 수 있다. 과거에는 2인용 체어리프트로 운행되다가 현대식 곤돌라로 시설을 교체한 피르스트반(Firstbahn)은 그린델발트에서 아이거(Eiger) 봉우리의 북벽(North Face)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막힌 전망대로 안내한다. 피르스트에 도착하면 바흐알프제(Bachalpsee)라는 산정호수까지 이어지는 하이킹로가 있어 파노라마를 즐기며 알프스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엽서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 모험심 가득한 이들이라면 로프에 매달려 시속 84km로 질주하며 800m 를 날으는 피르스트 플라이어(First Flyer)에 도전해볼만 하다.

고도: 2166m
찾아가는 법: 인터라켄(Interlaken)에서 기차로 그린델발트(Grindelwald)로 간 뒤, 도보로 마을을 지나 20분 정도 걸으면 피르스트로 향하는 곤돌라역이 나온다. 곤돌라는 피르스트 정상까지 3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식당: "레스토랑 피르스트(Restaurant First)"에는 350석이, 햇살 가득한 야외 테라스에는 300석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료: 편도 CHF 31 왕복 CHF 57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grindelwald-first.ch

3. 세계에서 가장 긴 곤돌라, 맨리헨반(Maennlichenbahn)

1978년부터 장장 6km가 넘는 거리를 운행해온 맨리헨반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 곤돌라 케이블웨이다. 그린델발트(Grindelwald)와 맨리헨(Männlichen)을 연결해 주고 있다. 그린델발트만큼 빙하가 가까운 계곡도 없기 때문에 곤돌라를 타고 맨리헨으로 올라가는 내내 즐거운 파노라마를 만끽할 수 있다. 맨리헨에서는 정겨운 야생화를 따라 어렵지 않은 하이킹에 도전해 볼 수 있다. 맨리헨(Männlichen)에서 출발하여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으로 돌아오는 걷기 코스를 추천하는데, 운동화만 신고도 가능한 평탄한 코스로, 봄부터 여름까지 다양한 알프스 허브와 야생화를 볼 수 있다.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한 코스다.

고도: 2343m
찾아가는 법: 그린델발트 역 뒤쪽의 그린델발트 그룬트(Grund) 구역으로 이동하면 맨리헨 방향으로 가는 케이블카 역이 나온다.
식당: 맨리헨 역에 전통 식당이 있다.
이용료: 왕복 CHF 57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maennlichen.ch

4. 007산으로 더 유명한 쉴트호른(Shilthorn)으로 향하는 케이블카, 쉴트호른반(Schilthornbahn).

슈테첼베르크(Stechelberg) 계곡 역에서 단 32분만에 쉴트호른 정상으로 안내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알프스의 세 명봉인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를 포함해 200개가 넘는 알프스 봉우리가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007 여왕 폐하 대작전의 로케이션 장소로, 제임스 본드가 스릴 넘치는 스키 추격전을 보여 주었던 곳이다. 정상에는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가 있어 알프스의 기막힌 파노라마를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즐기기 좋다. 쉴트호른의 석양도 무척 유명하다.

고도: 2970m
찾아가는 법: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에서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까지 기차를 타고 간 뒤, 포스트 버스로 갈아타고 슈테첼베르크(Stechelberg)에서 하차한다.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뮈렌(Mürren)을 거쳐, 쉴트호른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식당: 쉴트호른 정상에 낭만적인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가 있다.
이용료: 슈테첼베르크부터 쉴트호른까지 왕복 CHF 98.60 (스위스 패스 소지시 CHF 38.50)

알프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발레 주의 산악 교통.

1. 명봉, 마테호른의 위엄을 코앞에 선사하는 톱니바퀴 열차, 고르너그라트반(Gornergrat Bahn).

4000m급 봉우리 29개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정상에서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두포우르슈피체(Dufourspitze: 4634m)와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긴 빙하인 고르너(Gorner) 빙하가 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풍경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고르너그라트반 기차로, 1898년부터 운행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톱니바퀴 열차이다. 톱니바퀴 열차로 체르마트(Zermatt)부터 고르너그라트 정상까지 매 24분마다 기차가 운행된다. 짜릿한 고가를 지나고 터널과 깊은 숲속, 계곡과 산정 호수를 지나는 여정 자체도 무척 아름답다. 해발고도 3,089m의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는 야외 전망대가 연중 운영된다. 기차 여정도 즐겁지만 고르너그라트 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여름에는 산상호수와 야생화가 있는 하이킹을 즐길 수 있고, 3개의 바이킹 루트도 마련되어 있다.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다시 고르너그라트반에 올라타고 체르마트 마을로 돌아오면 되니, 무리하지 않아도 되어 좋다. 겨울이면 로텐보덴(Rotenboden)부터 리벨베르그(Riffelberg)까지 썰매 코스가 운영되고, 스키와 모굴 피스트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스노우 하이킹 코스도 좋다. 중간 중간에는 카페와 산장 레스토랑이 위치해 있어 출출한 허기를 달래며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고르너그라트 정상에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에 자리한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장만해 보아도 좋겠다.

고도: 3,089m
찾아가는 법: 체르마트(Zermatt) 기차역 맞은편에 있는 마테호른 고타르드 반(Matterhorn Gotthard Bahn) 기차역에서 고르너그라트 정상행 기차를 탈 수 있다. 정상까지 약 35분 정도가 소요된다.
식당: 고르너그라트 정상의 카페테리아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의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역들에도 레스토랑이 있다.
이용료: 편도 CHF 41, 왕복 CHF 82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gornergrat.ch

2. 한여름에도 스키가 가능한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로 향하는 케이블카, 체르마트 베르그바넨(Zermatt Bergbahnen).

체르마트 베르그바넨 아게(Zermatt Bergbahnen AG)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이자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의 3국 알프스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빙하 궁전이 있고, 마테호른의 명봉과 마주하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레스토랑과 케이블카 역이 친환경 모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곳, 게다가 정상에서의 숙박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스키가 가능해 전 세계 스키어들을 불러모으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는 원칭, 클라인 마테호른(Klein Matterhorn)이라는 봉우리를 말한다. 작은 마테호른이라는 뜻이다. 3883m에 위치한 케이블카 역에는 새롭게 단장한 레스토랑과 숍, 미네르기-P 인증을 받은 친환경 숙박 시설이 있다.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파노라마형 창문을 갖추고 있어 창밖으로 테오둘(Theodul) 빙하 위로 날아다니는 알프스 까마귀와 용감무쌍한 알프스 등정가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빙하 궁전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아름다운 얼음 조각과 신비한 빙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고도: 3883m
찾아가는 법: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마을을 지나면 케이블카 역이 나온다. 먼저 마테호른 익스프레스(Matterhorn Express) 곤돌라를 타고 푸리(Furi) 역에 내려 대형 곤돌라를 타고 트로케넨 슈테그(Trockenen Steg)에 내려 마지막으로 공중 케이블카를 타면 클라인 마테호른(Klein Matterhorn) 봉우리의 정상이자,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된다.
식당: 정상에는 친환경 레스토랑이 있고, 푸리 역에도 산장 레스토랑이 있다.
이용료: CHF 64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matterhornparadise.ch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전 식당으로 안내하는 사스페(Saas-Fee)의 지하 케이블카, 메트로 알핀(Metro Alpin)

체스옌(Chessjen) 빙하 아래를 뚫고 3500m 상공의 산 정상까지 질주하는 메트로 알핀(Metro Alpin)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하 철도다. 사스페(Saas-Fee)에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들이 빙하의 반짝임과 뒤섞여 눈부시게 만드는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메트로 알핀을 타고 터널을 지나다 보면 알프스 고산지대를 초속 10m로 질주하며 약 500m 고도 차이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기 일쑤다. 사스페에서 공중 케이블카인 알핀 익스프레스(Alpine-Express)를 타고 10분 뒤에 펠스킨(Felskinn)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하 퓨니큘러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전 레스토랑이 있는 미텔알라린(Mittelallalin)에 도착하게 된다. 4000미터급 봉우리에 둘러쌓여 천천히 회전하는 파노라마 한 가운데서 식사를 즐기기 좋다. 정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이스 파빌리옹이 있어 빙하와 얼음 조각들이 자아내는 신비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고도: 3500m
찾아가는 법: 사스페 마을 버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핀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역이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펠스킨에 도착해 메트로 알핀을 타면 미텔알라린 정상에 도착한다.
식당: 알라린 정상에는 360도 회전 레스토랑이 있어, 알프스 파노라마 한 가운데서 낭만적인 식사를 즐기기 좋다.
이용료: 왕복 CHF 72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saas-fee.ch/bergbahnen

4. 문학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겜미 고개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케이블카, 겜미 바넨(Gemmi Bahnen).

알프스 고지대의 파노라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갯길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주와 발레(Valais)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고개다. 셜록홈즈에도 등장하는 길이며, 모파상의 ‘산장(L'Auberge)’에 등장하기도 한다. 피카소를 비롯한 코난 도일, 마크 트웨인, 쥘 베른이 이 길을 따라 여행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알프스 스파 마을로 유명한 로이커바트(Leukerbad)에는 겜미 고개의 파노라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블카가 있다. 1411m의 로이커바트 마을에서 2350m의 겜미 고개까지 계곡 사이에 자리한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저멀리 펼쳐지는 웅장한 알프스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케이블카

여행을 할 수 있다. 겜미산 정상에는 빌트슈트루벨(Wildstrubel)이라는 산장 호텔이 있는데, 호텔의 산장 식당에서 운치있는 식사를 즐기기 좋다. 겨울에는 썰매나 스키를, 여름에는 하이킹을 즐기기 좋다.

고도: 2350m
찾아가는 법: 로이커바트 마을의 안쪽에 케이블카 역이 있다.
식당: 정상에 있는 빌트슈트루벨 호텔의 산장 식당이 운치있다.
이용료: 로이커바트부터 겜미산까지 왕복 CHF 32 (스위스 패스 소지시 CHF 29)
www.gemmi.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